

붙임 「수출 PLUS+ 전략」 규제혁신 완료 상세 내용

「수출 PLUS+ 전략」은 ①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②비용·세금 절감(Lower), ③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④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LUS+ 전략 12대 과제 : Pioneer, Lower, Uplift, Self-Manage】

<p>① P 신기술·신산업 지원</p>	<p>② L 비용·세금 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연구소 등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 ◆ 항공기 MRO 산업 유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 ◆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클러스터 보세구역 특허 관리 일원화 ◆ 석유·석화 제품의 혼합제조 절차 간소화 ◆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선택기한 연장
<p>③ U 신속성·효율성 향상</p>	<p>④ S 자율관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공휴일 先사용 後사용신고 확대 ◆ 보세공장 수출물품, 특송차량 보세운송 허용 ◆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신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작업 허가」 생략 ◆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허가」 생략 ◆ 「장외 일시장치 허가」 생략

<보세가공 제도>

- ◆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가공 후 수출입할 수 있는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보세가공 제도 활용 수출 비율은 95% 수준

【Pioneer】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

1. 연구·개발 장소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으로 초격차 기술 수출 강국 도약
(보세공장 고시 개정 시행, '26. 4. 29.)

*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공·검사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통한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신제품의 연구·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계의 20여 년에 걸친 숙원사항으로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서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가 대폭 빨라져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신제품 조기 출시 등에 따른 매출 증대와 경제 효과도 연간 1조4천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항공기 MRO 신산업 진입장벽 혁파로 MRO 항공기 유치 성공
(자유무역지역 고시 개정 시행, '26. 4. 6.)

MRO(정비·수리·개조) 대상 외국 항공기와 수천 개의 부품을 한 번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하여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신산업 진입장벽을 혁파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에서 과세보류로 MRO 작업이 가능하도록 관리부호 체계를 개편하고, 내국적 항공기도 함께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서 대형 항공기 개조 MRO 물량 유치에 성공해서 5월 초에 국내 최초로 보잉사의 B777 여객 항공기가 입고되어 화물기로 개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안착 이후에는 연간 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3.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유 공급 국제허브로 도약 기반 마련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 시행, '26. 3. 24.)

부산과 울산·경남 등 인근지역을 북극항로 개척과 국제무역선 친환경 연료 공급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오일탱크 56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판매·제조·가공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
북극항로는 친환경 선박유 사용이 필수이며, 관세청은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벵커링)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제품 반입 시 바로 블렌딩용 탱크로 직반입할 수 있게 개선해서 블렌딩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를 통해서 오일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친환경 선박유를 공급하는 국제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국제무역선과 환적물량 유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Lower]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비용·세금 부담 제거

1.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공장 신축 시 현재 보세공장과 관할세관 일원화 (보세건설장 고시 개정 시행, '25. 10. 31.)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축 위치가 현재 운영중인 보세공장과 관할세관이 다를 경우에 현 보세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이 첨단클러스터의 보세건설장도 일괄해서 관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서 관할세관 상이로 발생하는 첨단 설비·기자재의 반출입신고 오류와 업무 혼선에 따른 물류 지체를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과 연간 3천6백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선택 기한 연장으로 세금추징 등 불이익 방지 (보세공장 고시 개정 시행, '26. 4. 29.)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이 기존에는 '외국원료 사용 전'까지 였지만, 이번 규제혁신으로 '생산제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까지로 연장하여 신청 누락에 따른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업체들의 조세부담을 줄였다.

[Uplift] 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고속 물류체계 구축

1. 야간·공휴일에 외국원재료를 먼저 긴급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게 허용 (보세공장 고시 개정 시행, '26. 4. 29.)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범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를 반입시점에 관계 없이 바로 긴급 사용하고 사후에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제조·가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2. 특송차량 활용 수출보세운송 허용(보세공장 고시 개정 시행, '26.4.)

긴급한 수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수출할 때 보세운송등록 차량외에 FedEx, DHL 등 특송업체의 집하차량을

보세운송수단으로 이용해서 적재지 공항까지 운송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서 K방산·K조선 등 보세공장에서 긴급 교체용 엔진 부품 등 소형 수출물품을 수출국까지 한 번에 운송함으로써 운송비용 절감과 수출납기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elf-Manage]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자율관리 확대

1. 자율관리보세공장*의 내국작업 허가 및 장외일시장치 허가 절차 생략 (보세공장 고시 개정 시행, '26. 4. 29.)

* 수출입 안전 우수업체(AEO)로서, 보세사 채용·ERP 열람권한을 제공한 우수 보세공장

내국물품만으로 내국물품을 제조하거나 검사하는 '내국작업'에 대해 허가 및 완료보고 절차를 생략하여 내국물품도 자유롭게 연구·개발과 제조·가공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보세공장 외부의 보관장소를 사전에 등록하고, 이후 반출입신고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선박 수주 증가로 건조장소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K조선 등에서 거대 원자재의 보관과 작업장소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혁신] 보세공장을 통한 덤핑철강 우회수입 차단으로 K철강산업 보호 강화

(보세공장 고시 개정 시행, '26. 4. 29.)

중국·일본 등 덤핑 철강제품을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한 후 국내로 우회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 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보세공장 특허 조건으로 부여했고, 특허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하여 매년 특허 조건을 위반 여부를 심사해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 갱신을 불허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서 보세공장을 통한 덤핑 철강제품 우회수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위기의 K철강산업 보호를 강화했다.

[향후 계획]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설치로 수출지원 확대

관세청은 앞으로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가칭)「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설치하여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과 수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전 과정을 One-Stop 지원하고 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체에 대한 1:1 전문 컨설팅과 긴급상황 24시간 통관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